

미디어와 교육*

언론인 전문화를 주도하는 미국 경제저널리즘 대학원 사례를 중심으로

김성해**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위원)

1997년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 언론의 위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진단과 처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최근 언론의 위기가 언론인의 '전문성'과 '공익성'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 아래, 그 해결책으로 '언론 전문대학원'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간략하게 그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저널리즘 교육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왜 미국에서도 특히 '경제저널리즘 대학원' 과정에 주목하는가를 설명한다. 그 다음, 경제비즈니스 보도 석사과정을 제공하는 미국내 대학원들의 이념과 운영상의 공통점을 지적하는 한편으로 이들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 연구는 이에 먼저, 이들 과정이 '전문적인 정보중개인'으로서의 엘리트 언론인 양성을 목표로, 학생과 교수 간 도제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로, 학교수업과 실무연습이 통합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전공을 신문, 방송과 같은 매체와 경제, 국제정치, 과학과 같은 주제별로 나누는 한편으로 대부분 풀타임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나아가, 학생들은 저널리즘 유관 과목은 물론 경제보도 이론실기와 경제금융비즈니스 전공과목을 직접 이수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저자는 결론을 통해 먼저 뉴욕의 맨해튼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서울이 '전문대학원' 설립에 유리한 지리적 장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뉴욕대와 컬럼비아대의 프로그램이 한국적 상황에 창의적으로 접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나아가 국내의 경우 초급기자를 위한 '실무 중심의 Master of Science' 과정과 더불어 고급기자들을 위한 'Master of Arts' 프로그램의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당위론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전문 언론인 양성'에 대한 실천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작업들의 축적을 통해 '전문적 정보중개인'으로서의 기자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뉴스, 정치적 대중지식, 전문적 정보중재인, 언론의 공익성, 경제/금융 저널리즘

* 이 연구는 한국언론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언론인 예비학교 교수 모임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세 분 심사위원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 visionofsea@hotmail.com

1. 문제제기

1997년 외환위기라는 외부적 변수를 거치면서 가속화된 국내 언론의 위기는 경영상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언론의 신뢰성 회복이라는 보다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학계는 이에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송보도의 공정성 강화, 종이신문의 당파성(정치성) 극복, 언론 취재윤리의 회복, 진실보도와 객관성 강화,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 제고 및 사회적 공론장의 마련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손석춘, 2000; 윤영철, 2006; 이민웅, 2002; 이진로, 2004; 정태철, 2005). 언론업계 또한 이러한 안팎의 도전을 맞아 사내 교육기관을 통한 기자들의 전문성 강화, 비용절감과 경영효율성의 극대화 및 인터넷 환경에 부합하는 콘텐츠의 개발과 같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역시 2004년 지역신문발전법과 신문법과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국내 언론이 처한 지금의 위기는 이러한 제도적 정비와 '기술적 전문성'의 강화만이 아니라 '언론의 공익성'에 기반을 둔 보다 '전문화된 언론인'의 양성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즉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이미 '언론권력'으로 기능하는 언론의 개혁은 정부, 학계 및 시민단체와 같은 외부적 압력보다는 언론 내부에서 비롯될 때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며, 그 출발점은 '전문적인 정보중개자(professional communicator)'로서의 언론인 교육에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물론 이와 비슷한 입장을 취한 연구들이 그간 국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한국적 언론교육의 방향성 상실에 대한 지적이거나(송우천, 2001), 이론 중심의 국내교육을 비판하고 직무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거나(이재경, 2005), 저널리즘 교육에 있어 '이론과 실무' 간 갈등을 두고 진행된 미국 내 논란에 대한 소개를 통해 국내 학계와 업계의 협력을 촉구하거나(한근대, 1999), 미국과 유럽의 저널리즘 교육현황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한국형 저널리즘 학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머물렀다(남제일·최민제, 2005). 다시 말해, 언론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간의 긴장문제와 새로운 방향설정의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주장된 반면 ‘저널리즘 교육’ 일반의 문제가 아닌 ‘전문적인 언론인’의 양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의 마련에는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 이 연구는 이에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 내 경제/비즈니스 언론전문대학원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형 전문 언론대학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를 얻고자 한다.

물론 미국 내에는 단기간에 걸쳐 실무 위주의 경제보도 교육을 제공하는 듀크대, 미시간대 및 펜실베이니아대 등의 언론인 대상 연수 과정을 비롯해, 1년 동안 정해진 수업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경제보도 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펠로십(fellowship)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경제 및 비즈니스 저널리즘에 특화된 컬럼비아대의 Knight Bagehor 펠로십과 흑인 및 아시아계를 포함한 소수계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메릴랜드대의 Reuters 펠로십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들 연수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소수의 선별된 인원을 대상으로, 수강 과목 또한 유동적이며, 이론보다는 실무 위주의 교육에 치중한다는 점에서 전문정보중개인으로서 언론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저널리즘 학과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비즈니스 저널리즘에 특화된 대학원 과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미국 내 저널리즘 대학에서 경제, 금융과 비즈니스 보도와 관련된 강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에모리대, 이타카 칼리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대학은 따라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경제동향 및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들이 실제 경제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경제 및 비즈니스 보도’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나아가 경제와 비즈니스 보도 분야로 전공을 특화시키고자 하는 예비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찾을 수 있는데, 뉴욕시립대의 버루칼리지, 베일러대, 조지아대, 노스텍사스대와 워싱턴 & 리대학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학부과정의 경우 경제 및 경영학부를 부전공으로 선택하는 복수 전공 형태를 띠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저널리즘 교육을 토대로 세부 전공으로 경제보도를 특화시키고 있는 경제저널리즘 석사과정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한국 실정에 맞는 ‘전문적 언론

인' 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널리즘 전문대학원 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금융/비즈니스 보도에 특화된 대학원 과정을 열고 있는 학교들을 파악하고, 이들 과정이 발달하게 되는 사회적, 학문적 자원을 찾아보는 한편으로 각 과정별 교육목적, 학생 구성, 교수진, 학위 기간, 특이사항 및 구체적 교과과목을 분석했다. 그 다음 미국 내 경제/비즈니스 관련 전문 언론인 육성과정의 공통점과 차별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적 토양에 적합한 언론전문대학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들을 제안한다.

2. 미국 내 경제저널리즘 대학원 과정 현황

2006년 말 현재 미국에서 경제저널리즘으로 특화된 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거나 개설 예정인 곳은 뉴욕대, 뉴욕시립대, 버루칼리지, 노스웨스턴대, UC 버클리, 보스턴대, 아메리칸대 및 컬럼비아대 등 모두 8개로, 이들은 주로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와 보스턴과 같은 정치, 경제 및 문화의 중심지에 자리를 잡고 있다. 또한 이들 학교는 저널리즘 과정 외에도 경제, 법학, 정치 등 인접분야에서 풍부한 학문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데, 이들은 이를 토대로 학제 간 교환(interdisciplinary)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교과과정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교과과정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목적, 학생 층위, 교수진의 구성 및 교과과목에서도 일정한 차별성을 지닌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들 과정은 하지만 저널리즘과 뉴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합의를 공유하고 있다. 먼저 이들은 현대인들이 뉴스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 단순히 흥밋거리나, 오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현실생활에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잘 다듬어진 형태의 대중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Schudson, 1995: 17). 다시 말해, 여기서 뉴스는 “외부

환경의 변화, 즉 사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이슈들, 그것의 정치적 함의, 또 실제 그것이 자신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해석과 정보”라는 인식이 있다(Rosak, in Philo, 1999: 12). 두 번째, 여기서 뉴스는 ① 정확성, 균형성과 공정성이라는 전문적인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② 언론사라는 관료적인 조직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정보중개인에 의해, 그리고 ③ 집단적인 협력과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정교한 형태의 대중지식(public knowledge)이라는 합의가 존재한다(김성해, 2006). 셋째, 이들 프로그램은 ‘뉴스’가 역사적인 진화 과정을 거친 독특한 정치적, 문화적 장르이며, 특히 18세기 이후 성장한 중산층이 주도한 정치투쟁의 결과로 현실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Harris, 1996: 109). 이들은 따라서 오늘날 언론이 일반인이 누리지 못하는 ‘법정 증언의 유예권, 정보원 보호권 및 정부자료에 대한 접근권’ 등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언론을 정부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공중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 역사적 투쟁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취한다(Carey, in Muson & Warren, 1997: 80). 다시 말해, 여기서 뉴스는 정치적인 제약 없이 주어지는 단순한 대중지식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해 특권을 부여 받은 ‘기자’에 의해 가공된 ‘정치적 대중지식’으로 이해된다. 이들 과정은 따라서 공적기구로서의 언론은 매체(전파)의 희소성 때문이 아니라 한 사회가 민주주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언론사와 언론인들에게 부여한 경제적, 법적, 정치적 특권은 물론 이들이 사회적 ‘노동분화’의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에서 비롯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언론(뉴스)에 대한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이들은 나아가 전문대학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 즉

- ①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기민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수의 인원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 ②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과 전문가적인 감각을 가진 현직 기자들에 의한 수업의 진행, ③ 학생들과 교수진 사이에 중세의 도제관계와 같이 일하면서 가르치는 관계의 구축, ④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젝트가 실제 뉴스로 활용될 수 있는 학교 교육과 실무 교육

간의 연결체계, ⑤ 단순한 전문기교의 전수만이 아니라 사상, 정치, 문화 그리고 세계흐름에 대한 사상의 자유토론장(market place of ideas)의 마련, 그리고 ⑥ 실제 교수진과 학생들의 관계가 사제시간이 아닌 장기적으로 동료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것(Schell, 2005).

을 대체로 충족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이에, 아래에서, 이들 ‘학위 과정’의 목적, 교육이념, 운영방안 및 교과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뉴욕대(New York University)

뉴욕대는 국제적 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과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와 블룸버그통신(Bloomberg)과 같은 미국 유수의 언론사는 물론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이 잘 발달한 맨해튼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다른 저널리즘 대학원과 마찬가지로 뉴욕대의 과정은 매체별로 활자(magazine, newspaper), 방송(broadcasting) 및 디지털(digital)에 따라 전공이 나뉘지고, 이는 다시 비즈니스/경제보도, 문화보도/비평(Cultural Reporting and Criticism), 과학/환경보도(Science and Environmental Reporting) 및 세계화/복수 전공 영역(Global and Joint Program Studies)으로 세분화된다. 따라서 뉴욕대의 이 과정은 일리노이대와 텍사스대 등에서 제공하는 복수 전공(dual degree)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고, 이는 이 과정이 저널리즘 과목을 중심으로 인턴과 실제 뉴스제작을 필수 과정으로 두고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된다. 그러나 뉴욕대는 광고나 홍보 관련 수업을 개설하지 않는데, 이는 뉴욕대가 표방하는 다음과 같은 교육 목적에서 기인한다. 즉 뉴욕대는 먼저 저널리즘이 ‘기자’라는 ‘전문적 정보중개자’에 의해 완성되는 전문영역이며, 이를 위해 기자는 전문적인 지식, 의사소통 기술(craft) 및 윤리의식(ethics)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있다. 둘째, 여기서 저널리즘은 민주주의라는 대의정치체제와 더불어 발전한, 공적인 기구로 이해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저널리스트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 과정은 나아가 독특한 문화 장르의 하나인 뉴스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저널리스트에 의해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이나 관찰을 토대로 뉴스를 더욱 완성된 형태의 장르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은 따라서 ‘일하는 기자(working journalists)’면서 동시에 ‘생각할 줄 아는 전문가(thinking professionals)’가 되는 훈련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은 저널리스트가 생산하는 뉴스라는 것이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소비하는 공적인 정보라는 점에 주목, 학생들이 저널리즘 교육을 통해 예술, 과학, 경제와 같은 다양한 전문 분야의 학문을 ‘대중지식’으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것을 요구한다. 뉴욕대의 경제/비즈니스 석사과정은 이러한 교육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직 기자나, 금융 기관 종사자 또는 성적우수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약 12명 정도의 소수인원을 선별, 맨해튼이 가진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의 학생들은 따라서 인근 주요 언론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전문기자들을 특별 강사로 초빙해 매주 정기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현직 기자 출신 교수진과 일종의 도제관계를 구축, 수업과 뉴스제작 실무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는 자연스럽게 인턴십과 졸업 이후 취업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데, 이는 뉴욕대 출신 학생들이 포브스(Forbes)와 비즈니스위크(Businessweek)와 같은 전문경제잡지만이 아니라, 블룸버그와 로이터(Reuters)와 같은 통신사 및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유수신문사에 자리를 잡는 현실로도 잘 나타난다. 이 과정이 가진 또 다른 장점은 뉴욕대가 특히 로스쿨, MBA 스쿨 등에서 뛰어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점인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저널리즘 교육을 토대로 경제, 경영, 법률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힐 수 있다.

이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이에 비즈니스/경제보도에 있어 기본소양 교육에 해당하는 ‘기사작성 및 보도’ 수업은 물론 경제기자로서 부딪치게 되는 윤리 및 법적인 문제와 관련한 수업 및 공공이익에 대한 야경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탐사보도 관련 수업을 먼저 수강해야 한다. 저널리즘 전공 수업과 더불어 이 과정에 속한 학생들은 나아가 경제와 비즈니스와 관련한 석사과정 수업을

듣게 되는 데, 이를 통해 금융시장과 미국경제 및 세계경제 현실에 대한 전문
 가적인 소양을 기르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Writing, Research and
 Reporting’ 시간을 통해 기업설명회나, 선거, 주요 정책관련 담당자들의 연설
 문이나 법정사건 자료를 토대로 경제뉴스 작성법, 뉴스가치를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정보원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기법 등을 배우게 된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이수한 다음에는 실제 뉴스제작실과 동일한 조건에서, 주식과 채권시
 장의 동향이나 뉴욕과 인근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체 관련 기사를 작성하게
 된다. 특히 이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졸업 이전에 이미 경제 및 비즈니스와
 관련한 중요 정보원들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Specialized Reporting’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먼저 개인금융, 중소기업,
 오락산업, 벤처기업 또는 미디어산업 등의 특화된 주제를 선택, 분석 기사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 과목은 기업체에서 발간하는 실적보고서
 와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해석하고 이를 종합적이고 분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탐사보도가 사회적 부조리나 부당한 권력의 행사에 대한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탐사보도 과목은 개별기업체에 의한 정보왜곡
 을 감시하고, 부당한 기업행위로 인한 공익의 훼손을 막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인터뷰, 기업체나 시장에서 발행되는
 각종 보고서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을
 배우고, 이를 토대로 심층보도 및 분석 기사를 작성하는 법을 배운다. ‘Topic
 in Financial Markets and Corporate Finance’ 과목은 이를 보충해 주는 과목인데,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기업체가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주식 및 채권과 같은 금융도구에 대한 이해는 물론 금융시장을
 효과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저널리스트에게 요구되는 관행 및 전략에 대해
 배운다. 학생들은 나아가 언론의 공적인 기능에 대해서도 고민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일례로, ‘Social Impact Reporting: How Corporations Affect Their
 Communities’ 수업을 통해 공해문제, 토지이용 문제 또는 부당주식거래와
 같은 개별기업의 사업결정에서 비롯되는 논란거리를 공익이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분석적으로 보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배우게 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경제나 비즈니스 보도가 제기하는 법적/도덕적 문제에 대해 배우는데 ‘Law and Mass Communication’이나 ‘Press Ethics’와 같은 과목들은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와 명예훼손, 중상, 허위사실 유포, 정보원 보호, 프라이버시 침해 등 보도과정에서 부닥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또한 비즈니스/경제와 관련한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는데, 이들은 ‘Understanding Firms and Markets’ 수업을 통해 기업체가 시장에서 취하는 가격정책 및 품질전략에 대한 이해는 물론 기업 시장 소비자 간에 형성되는 미시경제의 원칙과 한계효용이론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학생들은 나아가 개별기업체가 국내단위가 아닌 세계시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도전에 대해서도 배우는데, ‘Global Business Environment I’과 같은 수업은 시장의 경쟁, 자본시장, 노동 및 경영능력의 활용 등과 같은 개별기업이 세계화 시대에 직면하게 되는 과제들과 더불어 이들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정부의 정책 및 산업동향 등을 다룬다. ‘Global Business Environment II’ 과목은 국제거시무역과 금융을 주로 다루는데, 학생들은 이를 통해 외환시장과 국제자본수지 계정과 같은 국제정치경제의 주요 개념들을 배우고, 이들이 개별국가의 정책결정이나 경제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학생들은 또한 미국기업의 역사적 발자취를 살펴보고 경제 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길러주는 ‘Economic and Busines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와 같은 과목도 수강하게 되는데, 이 과목은 특히 미국 기업들의 흥망성쇠에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요인에 대한 분석만이 아니라, 사업전략, 노동구조, 기술, 통신 및 교통 그리고 공공정책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이외에도 미국 내 금융시장만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 ‘Financial History’ 수업도 듣게 되는데, 여기서는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 국제금융체제의 구축과정, 채권과 주식시장의 구조와 국제적 통화 및 금융위기 등이 다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뉴욕대는 교과과정과 더불어 10주간의 여름

인턴과정을 필수코스로 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턴십이 끝나는 시점에서 월스트리트저널, 포춘(Fortune), 머니(Money), 포브스, 로이터, 다우 존스(Dow Jones News Service), CNN과 CNBC 등에 기고를 시작한다. 따라서 교과과정을 끝마친 학생들은 정식 석사학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경제 및 비즈니스 보도와 관련한 자격증을 또한 받게 된다.

2) 뉴욕시립대 저널리즘대학원(City University of New York)

뉴욕 맨해튼의 중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대학원은 지근거리로 미국 유수의 언론사와도 인접하고 있어 저널리즘 교육을 위한 최상의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2006년 9월에 새로이 문을 연 이 과정은 따라서 지역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이 학교는 수준 높은 비즈니스/경제 저널리즘 석사과정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수인종 및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대학원 과정과 동일하게 이 과정 또한 먼저 매체에 따라 전공을 신문(print), 방송(broadcast) 그리고 쌍방향미디어(interactive media)로 나누고, 그 다음 단계에서 도시생활(urban affairs), 경제/비즈니스 및 건강/의약(health and medicine) 등으로 세부 전공분야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주간이나 야간 대학원생을 받지 않고, 풀타임 학생만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1년 6개월(또는 3semester)에 걸쳐 15과목 이상을 수강해야 하고, 또 여름 인턴과정과 졸업 프로젝트를 필수로 규정한 강도 높은 교과과정 때문이다. 공립 교육기관으로서 저렴한 교육비용으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 과정은 따라서 공익성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수준 높은 윤리의식을 갖추고,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감이 충만한 언론인 양성’을 교육 목표로 정하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이 과정은 나아가 세계화와 자본시장의 발달 등에 따라 증대된 잘 훈련된 저널리스트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적 정보증거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저널리즘 영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재능 있는 기자의 육성을 또 다른 교육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뉴욕대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 역시, 지리적 이점을 살리고 있는데, 이는 교수진의 대부분이 실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 또한 현업에 종사하는 기자들과 일상으로 접촉할 수 있고, 이들과 친밀한 사제관계(mentoring relationship)를 구축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이 가진 또 다른 강점은 공립대가 제공하는 저렴한 가격의 다양하고 우수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인데, 학생들은 이를 통해 저널리즘에 기반을 둔 기본소양 교육은 물론 세부 전공과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더욱이 여기에 소속된 학생들은 뉴미디어만이 아니라 신문과 방송을 포함하는 다양한 매체에 두루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데, 이들은 이에 'Fundamentals of Interactive Journalism'과 같은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 있는 모든 학생은 의무적으로 'Craft of Journalism I'을 일주일에 이틀씩 수강하게 되는데, 하루는 기사보도 및 작성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과 세미나 수업을 받고, 다른 하루는 뉴욕시를 배경으로 실제 뉴스를 작성하는 훈련을 받게 된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들은 다음, 매체에 따라 특화된 과정을 포함한 'Craft of Journalism II' 수업을 듣게 되는데, 주 2회 진행되는 이 수업을 통해 분석 기사(commentary), 인물소개 기사(profiling)와 특집기사(features) 작성과 관련한 세미나와 토론을 하는 한편으로 뉴욕에서 일어나는 경제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심층 취재 기사를 직접 작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심층 기사 및 분석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취재원에 의해 주어지는 1차 정보만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개별기업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등과 같은 방대한 자료들을 분류, 체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데, 'Research Methods'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특히 정보를 확인하고 수집하며 나아가 평가하는 훈련을 받는다.

이 과정은 또한 저널리스트로서 어떤 사건을 기사화하고, 그 과정에서 누구를 정보원으로 활용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 가치판단을 돕기 위한 'Journalistic Judgment' 수업도 필수과목으로 정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여기서 실제 보도된 기사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기회를 갖는다. 학생들은 나아가 'Legal and Ethical Issues' 수업을 통해 저널리스트가 일선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문제점들과 관련한 법적 사례를 분석하고, 가능한 논란에 대처하는 전략을 배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자신이 전공으로 선택한 매체별로 다른 수업을 듣게 되는데, 예를 들어, 방송 전공 학생은 ‘Broadcasting News Writing and Production’과 ‘Advanced Broadcast Production Workshop’ 수업을 통해 속보뉴스(spot news), 특집기사(feature) 그리고 기획취재(enterprise stories)와 관련된 이론 및 실무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멀티형 저널리스트 양성을 목표로 한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매체별 전공에 상관없이 학생들은 인터넷상에서 문서, 그림과 시청각 자료를 처리하는 방식과 개인 홈페이지 및 블로그 작성 등에 대한 훈련도 받게 된다.

저널리즘 일반 과목을 이수한 다음에는 세부 전공에 따라 보다 전문화된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비즈니스/경제 보도를 선택한 학생은 따라서 3학기(semester)에 걸쳐 ‘Business/Economics Reporting’ 과목을 수강한다. 학생들은 입학 첫 학기에 듣게 되는 ‘Business/Economics Reporting: The Economy’ 수업을 통해 경제동향, 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 자본자유화 및 세계화 등 경제보도와 관련된 구조적 배경을 익히고, 통계자료 독해, 경제동향 분석, 정책 평가 및 논쟁적 경제이슈들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에 대해 공부하게 된다. 이 과목은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로 경제 기사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미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물론 분석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나아가 ‘Business/Economics Reporting: Covering Companies’를 두 번째 학기에 수강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주식과 채권시장의 역할, 투자자와 기업의 관계, 개별기업 수익구조 분석, 기업전략 평가 및 회사최고경영자 인터뷰 요령 등을 배운다. 이 과목은 또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특정 회사를 선택, 이를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도록 하는데, 주로 회사 투자전략, 수익구조, 경영전략 및 최고경영자 분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Business/Economics Reporting: Covering Wall Street’ 수업은 마지막 학기에 수강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주식, 채권, 외환 시장의 동향 및 월가에서 활동하는 은행 및 투자전문 회사, 증권거래소 그리고 정부감독기관의 역할 등을 익힌다.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으로 학생들은 두 번째 학기가 끝나

고 세 번째 학기가 시작되기 전 여름방학 동안 인턴과정을 필수적으로 밟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월가에 자리 잡고 있는 블룸버그, 다우존스, 로이터와 같은 경제뉴스 전문매체에서 일하게 된다. 졸업프로젝트는 매체별로 다른 형태를 띠지만, 학생들은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기자들 수준의 경제뉴스를 제작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신문 전공의 경우 최소 3,000단어 이상의 분석 기사를, 방송 전공의 경우에는 최소 9분 이상의 기획 기사를, 그리고 쌍방향 미디어 전공자의 경우에는 웹사이트용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이 과정은 또한 겨울방학에 해당하는 1월에 특별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UN 보도와 관련한 과목을 듣거나, 편집관련 수업 또는 사설 작성과 관련한 단기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3) 뉴욕시립대 버루칼리지(Baruch College, CUNY)

비록 동일한 뉴욕시립대 시스템에 속해 있지만, 버루칼리지는 보다 특화된 비즈니스 저널리즘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데, 이 과정 역시 맨해튼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공립대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교과과정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뉴욕시립대 저널리즘 석사과정과는 달리 주로 현직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년 기간의 풀타임과 더불어 3년 기간의 파트타임 과정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 또한 경제/비즈니스 전문대학원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교수진은 대부분 블룸버그, CNN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언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인근 지클린(Zicklin) 비즈니스 스쿨에서 금융 및 회계 수업을, 와이즈만 센터(Weissman Center)에서는 국제경제 및 비즈니스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경제, 비즈니스 그리고 금융관련 전문보도 영역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전, 현직 언론인 및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과정은 따라서 교육의 주안점을 언론인의 기초소양이나 사회적 책임보다는 경제보도 전문 언론인 양성에 두고 있다. 실제 교과과정은 이런 교육 목표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되는 과목들은 대부분 실제 뉴스 제작과 관련된 것들이며 전공

선택 과목들 또한 매우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인턴과정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며 인턴 형태도 다양하다. 그러나 학생들은 6개의 전공 필수과목과 6개의 전공 선택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모두 마치기 위해서는 풀타임의 경우 약 2년, 파트타임의 경우에는 최소 3년이 소요된다.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학생들은 반드시 논문프로젝트를 제출해야 하는데, 주로 최소 3,500단어 이상, 포브스, 머니, 포춘지 등에 실릴 수 있는 수준의 심층 및 분석 기사를 작성하게 된다. 하지만, TV와 라디오에 더 익숙한 학생의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최소 30분에서 60분에 이르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한다.

이 석사과정에서, 학생들은 먼저 ‘Business and Financial Reporting’ 수업을 듣게 되는데, 이 과목은 경제 및 비즈니스 보도와 관련한 기본 개념들에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학교 내 뉴스제작실에서 실제 뉴스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 과목은 또한 정기적으로 현직에 근무하는 기자들을 강사로 초청, 그들이 실제 현업에서 다루는 주제를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경제/비즈니스 뉴스를 비판적으로 해독하고, 개별 기업체의 손익보고서를 평가하고, 인수 및 합병과 관련된 쟁점 사안에 대한 보도 요령을 배운다. 이 수업에서 강의 교재로는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일간지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와 비즈니스 위크(Businessweek)와 같은 경제전문 잡지가 사용된다. 학생들은 나아가 ‘The Evolution of the American Business Press and the Companies It Covers’ 수업을 필수과목으로 수강하게 되는데, 이 과목은 미국의 경제발전 과정과 더불어 성장한 비즈니스 저널리즘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미국 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안목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과목은 미국의 초기 산업화 과정, 철도의 등장과 도시를 배경으로 한 상업지의 등장, 거대기업군의 성장 및 과학적 경영의 도입, 월스트리트의 성장, 대공황과 정부규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미국 내 노동파업, 비즈니스 대학의 등장, 신보수주의 경제모델로 알려진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의 등장,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인터넷 산업의 성장과 2001년

닷컴 거품의 붕괴 등에 이르는 방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학생들은 따라서 이 수업을 통해 인수 및 합병, 국가경제안보, 석유와 같은 1차 상품시장의 확보, 가격담합 및 불공정 거래, 기업 간 경쟁 그리고 규제 및 탈규제와 관련한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대해 폭넓게 공부하게 된다. 학생들은 나아가 보다 특화된 수업인 'Editing Business News'와 같은 과목도 수강하게 되는데, 이 과목은 편집자로서 관련뉴스와 후속 기사 배치와 같은 1차적 편집과정은 물론 헤드라인을 선정하고, 특정 사진을 부각시키고 축소하는 등의 2차적 편집과정에 대한 기초 훈련을 제공한다. 또한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현업에 종사하는 경제 및 비즈니스 뉴스 편집진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러한 만남을 통해 편집과정의 애로사항이나 뉴스가치 판단에 대한 노하우를 접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그밖에도 학생들이 취재 현장 및 뉴스보도에서 부닥치게 되는 제반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데, 'Legal and Ethical Issues in Business Journalism'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저널리스트가 알아야 할 법적 권리가 무엇이며, 어떤 법적인 위협이 존재하는지,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조안을 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및 경제보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윤리적,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를 배운다. 학생들은 또한 전공 선택과목을 통해 은행(banking), 뉴욕시 경제(New York City economy), 월스트리트(Wall Street) 및 국제경제(international economy) 등으로 보도 분야를 보다 전문화시킬 수 있는데, 이들 과목은 주로 심층 기사 및 분석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은 언론의 감시기능을 경제주체들로 확대한 'Investigative Business Reporting' 과 같은 수업도 들을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내부자 거래 및 분식회계 등을 가려내고, 각 경제주체들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수업은 따라서 엔론(Enron) 회계 조작과 같은 기업체의 부정이 가능하게 되는 배경을 살펴보고, 공적인 기구인 언론이 기업체의 부정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노스웨스턴대(Northwestern University)

뉴욕을 근거지로 한 위 과정들과 마찬가지로 이 과정 역시 시카고라는 지리적 장점과 켈로그(Kellogg) MBA 프로그램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인접분야 교과과정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의 경제보도 석사과정은 특히 학교 교육과 실무를 철저히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학생들이 석사학위를 마치기 전에 시카고의 메딜 뉴스서비스(Medill's News Service)와 워싱턴의 메딜 워싱턴 D.C. 뉴스 서비스(Medill's Washington D.C. News Service)에서 각각 1쿼터(quarter) 동안 인턴과정을 밟고, 추가적으로 약 3개월간 런던, 파리 또는 홍콩 등에서 다우존스, 블룸버그 또는 로이터 통신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과정 또한 먼저 전공을 매체별로 구분하는데, 학생들은 이에 활자매체(Reporting and Writing), 방송, 잡지, 출판과 뉴미디어 중 하나를 전공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4쿼터제 또는 12학점의 이수로 끝이 나는 일반적인 언론학 석사과정과는 별도로 국제 보도(global reporting), 법률 보도(law), 종교 보도(religion)와 경제 및 비즈니스 보도(Business & Economics)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비즈니스 보도를 전공한 학생들은 그 결과 정규 과정보다 3개월이 연장된 5학기(쿼터제) 동안 수업을 들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이들은 은행, 금융, 환경경제, 경제발전, 지적재산권, 기술, 국제경제, 에너지 및 교통 또는 비영리단체 등으로 자신의 전공을 특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이 과정은 현장 경험을 필수과정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실무 경험을 가진 기자일 필요는 없지만 풀타임에만 등록할 수 있다. 실용적 저널리즘을 특히 강조하는 분위기로 인해, 교수진들은 전원 언론계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학생들은 이들의 지도에 따라 실무 과정을 겸하는 석사과정을 밟게 된다. 보통 한 학기 내 교과과정은 주로 실제 보도실습과 관련 세미나 수업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보도실습에만 최소 일주일에 3일 이상의 시간이 요구된다. 그리고 비즈니스 저널리즘 학생들의 경우, 저널리즘 석사과정에서 요구하는 필수과목을 이수

한 다음에, 금융 및 국제경제와 관련한 5개의 과목을 추가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학생들은 먼저 저널리즘 필수과목인 'Journalism Methods'와 관련한 3개의 과목을 이수하게 되는 데, 학생들은 이를 통해 기사 보도, 작성 및 편집과 같은 기본 소양 교육과 윤리 및 법제(ethics and law) 관련 세미나 수업을 듣게 된다. 현업 경험이 있는 기자들의 경우에는 이 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지만 윤리 및 법률 관련 세미나 수업은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보도 수업은 방법론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모든 학생들은, 매체별 전공에 상관없이, 최소 1학점 이상 'Reporting of Public Affairs' 수업을 듣게 된다. 그러나 이 과목을 수강할 때 학생들은 자신의 세부 전공에 따라 다른 세미나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비즈니스 저널리즘을 전공한 경우에는 'The Economy' 수업을 듣는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경제 및 금융과 관련한 기본 개념과 국제, 국내 및 지역경제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으로 시카고 선물거래시장과 곡물거래시장 그리고 시카고 인근 회사들에 대한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생들은 나아가 주제별로 특화된 'Reporting Public Affairs' 과목을 통해 'The Arts'나 'Magazine Writing and Editing' 또는 'Medical and Environmental News'와 같은 과목을 선별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물론 비즈니스 저널리즘을 전공하는 경우에는 'Culture and Economics of Journalism'과 같은 과목을 통해 언론산업(media industry)의 변화를 포함, 뉴스취재, 작성에 있어 법적인 문제점들과 뉴스제작에 있어 경영진의 압박이나 윤리적 문제점 등을 배우게 된다.

학생들은 또한 'Research Methods for Journalists seminar' 수업을 통해 '정밀 보도(precision journalism)'를 배우는 데, 이 수업은 통계기법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기사보도 및 과학적인 설문조사 작성법과 같은 리서치 방법론을 포함하고 있다. 비즈니스 저널리즘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외에도 켈로그 경영대학원에서 개설하는 3개의 전공 필수과목과 2개의 전공 선택과목을 추가적으로 수강해야 하는데, 이들은 먼저 'Finance I' 수업을 통해 확률(probability) 및 통계기법은 물론 주식과 채권평가, 자산평가 모델, 효율적인 금융시장

및 자본분할(capital budgeting)과 같은 주제를 배우게 된다. 또 다른 전공 필수과목인 ‘Business Strategy’는 기업체의 제반 환경과 사업전략을 다루는데, 구체적으로 산업경제분석(Analysis of industry economics), 경쟁력 우위 및 전략적 사업구상(strategic positioning and competitive advantage) 그리고 경쟁력우위 유지를 위한 자원 및 잠재력 활용 등의 주제가 다루어진다. 마지막 전공 필수과목은 ‘Statistical methods for Management Decision’인데, 학생들은 이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 분석과 더불어, 가설검증, 상호연관성, 단순/복합회귀모델 및 질적 변수 등을 포함하는 통계관련 기법을 배운다. 전공 선택과목으로 학생들은 ‘International Business Strategy’나 ‘International Accounting’ 또는 ‘International Financing’과 같은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국제금융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외환거래의 위험, 선물과 옵션을 통한 위험관리, 국제 환투기 세력, 국제수지균형(balance of payment)과 같은 주제들을 익히게 된다.

5) U. C. 버클리대(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대부분의 비즈니스 저널리즘 프로그램이 동부 대도시에 모여 있는 것과는 달리 이 대학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이 과정은 정상급의 경제뉴스 전문 매체에서 일할 최고의 경제기자 육성을 목표로 블룸버그 LP의 후원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이 과정은 할리우드(Hollywood), 실리콘 벨리(Silicon Valley)와 바이오테크(Biotech)와 같은 산업도시들과 인접해 있어, 경제저널리즘을 위한 최적의 지리적 조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현업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초빙 강사 형태를 통해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데, 학생들은 특히 협숙소 형태로 운영되는 소규모 강의 체제를 통해 교수진들과 실질적인 도제관계를 구축한다. 하지만 버클리대 석사과정은 신문, 방송, 잡지, 라디오 및 뉴미디어에 따른 매체별 분류와 사진저널리즘(photo journalism), 환경저널리즘(environmental journalism), 도시생활 보도(urban reporting), 국제보도(international reporting)와 비즈니스 보도(business reporting)와 같은 주제별 분류를

병행하는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특히 기술보도와 환경보도를 강조하는 한편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매체에 대한 적응력을 두루 갖추도록 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은 따라서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시안들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경제뉴스를 다룰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 학교측은 이를 위해 경제 및 기술보도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자들을 중심으로 교수진을 구성하고, 학생들이 이들과 친밀한 개인적 유대관계를 구축, 학교에서 배운 전문지식이 실제 뉴스 제작과 보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최근에 임용된 교수진의 면면을 통해서 더 잘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칼 쉰버그(Karl Schoenberger)는 LA 타임스 도쿄 지사장을 거쳐 포춘지 홍콩지부장을 지낸 기자 출신이며, 카라 스위셔(Kara Swisher)와 케이티 하프너(Katie Hafner)는 각각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의 기술 분야 전문기자 출신이다. 학생들은 나아가 버클리대에서 특별히 마련한 초빙강사 시간을 통해 현지 전문가들의 시각을 접할 수 있고, 편집인과 기자들이 참석하는 학술회의 등을 통해 금융보도, 정보 수집 방법과 기술 관련 최첨단 정보를 배울 수 있다. 이 프로그램 소속 학생들은 또 인턴과정에서도 다른 엘리트 대학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는데, 이들은 주로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 파인 내셔널 타임스, 다우존스와 같은 엘리트 언론사와 샌프란시스코 비즈니스 타임스(San Francisco Business Times)나 사크라멘토 비(Sacramento Bee)와 같은 유력 지역 언론사에서 현장 경험을 쌓고 있다. 이러한 집중적 지원으로 인해 2년간의 석사과정을 거친 대부분의 학생들은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포춘, 블룸버그, CBS와 같은 주요 언론 매체에 자리를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이 이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전공매체와 상관없이 언론현장에서 부닥치게 되는 법적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Law and Ethics’ 과목이나 뉴스의 선택(news judgment), 검열(censorship), 언론의 전문성(professionalism) 및 경영권과 편집권의 갈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The Mass Media and Society’와 같은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이 과정은 나아가 ‘Advanced Business

Reporting'이나 'Investigative Reporting' 또는 'Technology Reporting' 수업도 필수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Advanced Business Reporting'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기업운영, 월스트리트 금융시장의 구조 및 각종 보고서를 이해, 평가, 발굴하는 방법을 배운다. 특히 이 수업은 경제, 금융, 비즈니스 연구를 위해 블룸버그 정보터미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훈련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또한 비즈니스 저널리즘 과목으로 보다 특화된 'Covering the economy: The story behind the numbers'와 같은 수업을 듣게 되는데, 경제학과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본 과목은 인플레이션, 실업률, 환율시세와 같은 경제수치를 분석, 평가하고, 뉴스라는 특정 장르에 적합한 형태로 복잡한 경제현안을 가공하는 훈련을 받게 된다. 특정 분야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는 학생들은 하스(Hass) 경영대학원에서 제공하는 과목들을 수강하는데, 'International Finance'와 같은 수업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동향과 기업금융전략의 분석 및 국가 간 환율정책, 외환시장 위험관리 전략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자본분산 전략 등을 배운다. 현직 언론인 출신이나 관련분야 유경험자의 경우에는 인턴과정을 대신해 논문프로젝트를 제출함으로써 이 과정은 끝이 난다.

6) 보스턴대(Boston University)

저널리즘 대학원에서 'Master of Science in Business and Economics'를 개설하고 있는 보스턴대는 은행, 금융, 보험과 바이오테크놀로지(Biotechnology) 관련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 동부 보스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지리적 장점과 더불어 보스턴대가 자랑하는 최고 수준의 인문사회과학적 학부 과정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스턴대의 석사과정이 Master of Arts가 아닌 Master of Science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로 인해 학생들은 논문이나 졸업프로젝트 대신 비즈니스 저널리즘과 관련된 전공과목 이수에 더 역점을 두게 된다. 이 프로그램 또한, 다른 과정들과 흡사하게, 학생들에게 풍부한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매사추세츠에 있는 주요 언론매체인 the Worcester Telegram, the Lawrence Eagle Tribune, the Quincy Patriot Ledger 등의 통신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석사과정은 매체별 구분보다는 전공별 구분 방식을 택하는데, 구체적으로 저널리즘, 방송저널리즘, 비즈니스/경제저널리즘, 그리고 과학저널리즘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뉴욕대와 마찬가지로 보스턴대 또한 저널리즘의 고유 영역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이 과정의 교육 목적에서 잘 드러난다. 이 대학의 저널리즘 석사과정은 무엇보다 먼저 성공적인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폭넓은 인문사회과학적 교양 교육(liberal arts education)을 강조하는데, 이는 저널리즘 학부생들로 하여금 70% 이상의 수업을 저널리즘 스쿨 바깥에서 수강하게 하고, 부전공을 필수로 정하고 있는 데서도 잘 확인된다. 학생들은 부전공을 통해 해당 전문 분야에 더 친숙해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은 따라서 학생들이 최첨단 미디어 기술을 익히고 기술 활용 부문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편으로 매체에 담아낼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가 가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비즈니스 저널리즘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개별기업이나 금융시장의 기능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경제수치 이면에 있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이 과정은 또한 최고 수준의 현직 경제 및 비즈니스 언론인을 교수진으로 초빙, 학생들로 하여금 졸업 전에 실제 뉴스를 작성하고 보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3학기(semester) 또는 약 1년 반에 걸쳐 커뮤니케이션 대학(College of Communication)과 경영대학(School of Management), 경제학부(Department of Economics)와 철학부(Department of Philosophy)에서 개설하는 과목들을 자신들의 세부 전공에 따라 수강하게 된다.

이 과정은 크게 저널리즘 핵심 과목과 비즈니스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들은 먼저 ‘Introduction to Business and Economics Reporting’ 수업을 통해 경제보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개념들을 익히고, 복잡한 경제 및 금융 주제를 뉴스라는 포맷으로 가공하는 훈련을 받게 된다. 학생

들은 이 과목을 통해 보스턴 주변 지역의 기업체를 보도하는 교육을 받는 한편으로 회사 경영진 및 전 세계 유명 현직 비즈니스 기자들을 만나게 된다. 학생들은 다음 단계로 본격적인 뉴스 제작 실습을 받게 되는데, 'Journalism Principles and Techniques' 수업은 실제 뉴스제작실과 동일한 실험실을 이용, 학생들이 마감시간에 맞추어서 직접 뉴스를 작성하고 보도하는 연습을 하게 한다. 그리고 기업체 보도 및 회사 최고 경영진 보도를 위한 'Writing Profiles of Business Leaders'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기업체 보도에 있어 던져야 할 질문들, 최고 경영진 인터뷰 요령, 개별 기업체의 조직 구성 및 사업 전략 등을 서사 형식(narrative)의 기획 기사로 담아내는 훈련을 받게 된다. 학생들의 정보 수집, 분석,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과목으로는 'Advanced Journalism Research'가 있는데, 이 과목은 분석 기사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를 이용해 기초자료를 얻는 방법은 물론 정보자유법안(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활용하는 전략을 다룬다. 이 프로그램 또한 'Media Law and Ethics' 수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여기서 현업에서 부닥치게 되는 윤리적/법적 문제를 점검해 보고, 명예훼손이나 중상모략,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문제를 전문적 정보중개자인 기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배운다.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비록 선택과정이지만, 윤리적 문제를 보다 철학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과목인 'Types of Ethical Theory'나 'Contemporary Ethical Theory' 수업을 청강할 수 있는데, 이들 과목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피노자, 칸트, 스튜어트 밀과 같은 근세 철학자를 포함, 무어(Moore), 풋(Foot), 윌리엄스(Williams), 매킨타이어(MacIntyre)와 롤스(Rawls)와 같은 현대 철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윤리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 소속된 학생들은 저널리즘 핵심과목 외에 비즈니스 관련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데, 먼저 'Microeconomics Theory' 수업은 소비자의 기본적 경제행위, 불확실성의 경제, 불완전 정보시장, 생산이론, 경쟁적 평형 분석, 기본적 게임이론, 불완전경쟁 등을 다룬다. 또한 개별 경제행위자가 아닌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구조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 'Macroeconomic Theory'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통화 및 재정정책의 역할, 인플레이션, 이자율,

환율시장 등을 배운다. 세부전공으로 개인금융을 택한 학생들은 ‘Financial Management’ 같은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이 과목은 개별 가계 차원에서 저축 및 투자 결정, 기업 차원에서 투자 및 금융 결정,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주식·채권시장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 ‘Financial and Managerial Accounting’ 과목은 기업보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되는데, 이 과목은 주주와 신용평가사 그리고 기업분석가들에게 제공되는 금융회계와 회사 경영진에게 제공되는 경영회계에 대한 강의를 포함, 기업의 결산보고서,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및 대차대조표 등을 평가하는 훈련을 포함한다. 그리고 국제 경제 현안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 ‘International Economics’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무역 분쟁의 원인은 물론 규모의 경제학, 불완전 경쟁, 그리고 관세, 환율, 무역장벽과 관련한 각국의 통상정책을 알게 된다. 학생들은 나아가 국제적 외환위기와 남미 외채위기 등을 다루는 ‘International Finance’ 수업을 통해 국제수지균형, 환율정책, 국제자본시장의 성장과 유럽 단일 통화인 유로(euro)의 경제적 의미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7) 아메리칸대(American University)

미국 정치 중심지인 워싱턴 D.C.에 위치한 아메리칸대의 석사과정은 크게 신문, 방송, 뉴미디어 기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저널리즘 과정(Journalism), 홍보나 정치캠페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공공커뮤니케이션(Public Communication) 분야 및 영화나 음악 및 온라인 게임 전문가를 위한 영화/예술(Film/Arts)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다. 저널리즘 전공학생들은 다시 신문, 방송, 쌍방향미디어(interactive)와 뉴스미디어학(news media studies)으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신문과 방송저널리즘 전공 학생들은 ‘공공정책저널리즘(public policy journalism)’, 국제저널리즘(international journalism) 또는 경제커뮤니케이션(economic communication) 중 하나를 자신의 세부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경제보도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이 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 및 금융관련 분야에 대해 폭넓은 이해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한편으로 기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 의식과 전문자적인 자질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1년 기간으로 진행되는 경제보도 석사과정의 교수진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워싱턴 포스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언론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대부분은 컬럼비아대를 포함한 저널리즘 대학원의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학생들은 인턴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미국 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 D.C.가 가진 지역적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대학 내 저널리즘 스쿨에서 운영하는 ‘American Forum’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는 Saturday Night Live, the Freedom Forum, MTV, the Daily Show with Jon Stewart 및 워싱턴포스트와 뉴스위크 인터랙티브(Newsweek Interactive)에서 근무하는 작가, 기자 그리고 경영진들을 포함, 상원의원, 정부관계자 등이 참가, 언론 현안에 대해 학생들과 직접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학생들은 저널리즘 분야에서 6개의 전공과목을 들어야 하고,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6개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해야 하지만 학생들의 전공과목은 신문전공과 방송전공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그러나 매체나 전공에 상관없이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Legal Aspects of Communication’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이 과목은 뉴스제작 및 보도와 관련한 정치, 경제, 문화적 제약요인 및 언론현장에서 부닥치게 되는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침해, 저작권, 위법행위 등을 다루게 된다. 워싱턴의 지리적 특성을 살린 공공정책 보도(Public Affairs Reporting) 또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들어야 할 수업인데, 경제보도 전공자들은 본 과목을 통해 국내외 경제정책에 대한 보도, 경제정책에 있어 언론의 역할과 정부와 언론간의 갈등과 같은 주제를 접할 수 있다. 학생들은 나아가 언론인으로서 지녀야 할 전문적 소양 (professionalism)을 다루는 ‘Principles and Practices of Journalism’을 필수과목으로 수강해야 하는데, 특히 이 과목은 보도에 있어서 기사가 지켜야 할 공정성(fairness)과 형평성(balanced reporting)과 같은 직업윤리는 물론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 문제를 다룬다. ‘Business and Economic Journalism’은 경제보도

전공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과목인데, 학생들은 이를 통해 비즈니스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공부하고, 경제, 경영, 금융과 관련한 기본 개념들을 익히며, 나아가 경제학자들, 은행가들, 시장분석가들과 각급 경제행위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복잡한 경제현안들을 대중적인 언어로 재구성하는 훈련을 받는다.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따라서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LA 타임스, 비즈니스 위크, 포춘,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타임스 등과 같은 경제전문 신문과 잡지를 읽는 훈련과 더불어 실제 경제기사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경제보도 전공자들이 들어야 할 비즈니스 과목 중에서 눈에 띄는 과목은 ‘American Economic Development’인데, 학생들은 본 과목을 통해 기술혁신, 자본형성, 교통체계, 은행, 국제무역, 자본이동, 이민정책, 그리고 노동정책 등 미국경제 성장의 주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정부와 민간경제 주체간의 갈등과 협력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할 기회를 갖는다. ‘Energy Economics,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수업 또한 주목을 끄는데, 이 과정은 에너지관련 산업 동향, 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 석유와 같은 에너지를 둘러싼 국가경제적 이해관계 및 에너지개발과 환경보존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한다. 그밖에, 학생들은 세부전공에 따라 특화된 수업을 들을 수도 있는데, 실업문제나 도시빈민과 관련, 심층, 분석보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경제학(Labor Economics)을, 개별기업(corporations)에 초점을 맞추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조직론(Industrial Organization)과 같은 수업을 통해 전문지식을 배양할 수 있다. 끝으로 본 과정의 학생들은 종합시험에 해당하는 ‘Comm 001’을 통과함으로써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8) 컬럼비아대(Columbia University)

뉴욕의 맨해튼에 자리 잡은 컬럼비아대는 일찍부터 특화된 저널리즘 대학원 교육을 강조한 것으로 유명한데, 2005년 가을학기에 신설된 언론학 석사과정(Master of Arts) 또한 그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직업교육을 중심

으로 한 Master of Science 과정에 이론과목을 보다 강조한 본 과정은 따라서 석사학위 소지자나 상당기간 실무 경력을 가진 기자들을 대상으로 ‘예술/문화 (Arts and Culture)’, 비즈니스/경제, 정치, 그리고 과학/의약 등 4개의 세부전공으로 나누어져 있다. 학생들은 대학원 세미나 수업과 외부 선택과목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특화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경제 및 비즈니스 보도의 경우에는 ‘Business and Economics Journalism Seminar’ 수업을 가을 학기와 봄 학기에 걸쳐 수강하게 되고, 경제학부나 경영학부에서 부전공 과목 2개를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이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약 1년의 기간이, 또는 두 학기 (semester)가 소요되며, 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3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논문 프로젝트 또한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먼저 ‘관련 보도 분야에 대해 광범위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기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언론이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공적 도구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뉴스’라는 것이 결국 사회적 공론장(public sphere)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인 대중지식으로 기능한다는 인식에 토대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상당기간의 실무 경험을 가진 기자들과 컬럼비아대에서 Master of Science 석사과정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첫째 26명에서 출발 향후 5년 동안 선발 인원을 45명에서 60명까지 늘릴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의 교수진은 대부분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포춘, 블룸버그 등에서 근무한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기사작성이나 보도와 같은 초보적인 기술전수가 아닌 학생들이 장차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들은 나아가 민주주의와 언론, 언론의 사회학과 언론의 정치학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는 데, 제임스 캐리 (James Carey)와 마이클 셔슨(Michael Schudson), 그리고 타드 기틀린(Todd Gitlin)과 같은 이 분야 석학들이 이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은 먼저 공통적으로 ‘Evidence and Inference’ 수업을 듣게 되는데, 두 학기에 걸쳐 진행되는 이 과목을 통해 현장에서는 얻을 수 없는 철학적 주제들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이 과목은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사실(facts), 진실(truth), 증거(proof)와 같은 개념들이 실제 얼마나 복잡하고 불확실한 개념들인가를 배우게 함으로써 ‘겸손(humility)’을 가르치는 동시에 복잡한 정보를 취득하고 이해하는 훈련을 통해 ‘자신감(confidence)’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은 또한 ‘A History of Journalism for Journalists’ 수업을 역시 두 학기 동안 수강하게 되는데, 이 과목은 특히 학생들로 하여금 현대 저널리즘이 가능하게 되는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고,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학생들은 여기서 저널리즘이라는 장르가 가진 정치적, 문화적 성격을 이해하고, 전문가로서의 언론인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며, 나아가 기자로서 부닥치게 될 정치적, 문화적 현실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게 된다. ‘Business and Economics Journalism Seminar’ 수업은 경제보도 전공자들이 수강하는 과목인데, 먼저 가을학기 동안 학생들은 주식시장의 동향, 경제흐름, 정책들에 대한 분석 및 심층보도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경제적인 논리(economic logic)와 정보(data)를 활용하는 전략을 배우고, 매주 1,400에서 1,800단어에 이르는 기사를 작성하는 훈련을 받는다. 이듬해 봄 학기에는 비즈니스를 분석, 평가하기 위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데, 이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비즈니스 일반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분석력(analytic skills)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학생들은 이와는 별도로 전공별 부전공 수업을 듣게 되는데, 경제보도 전공자의 경우, ‘Globalization and Transnational Processes’,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nd Earning Quality’, ‘Modern Political Economy’, ‘Economic History of Europe’, ‘Economic Organization and Development of Japan’, ‘The Theory of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Monetary Transaction’ 및 ‘The Geopolitics of Energy’와 같은 수업들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된다. 특히 ‘The Geopolitics of Energy’와 같은 과목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과목인데, 학생들은 이 과목에서 미국의 정치, 경제, 안보이익이 미국의 대외정책과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정부 정책들에 대한 평가와 에너지 개발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논문 프로젝트인데, 학생들은 저널리즘 교수와 외부 교수진의 논문지도를 통해 약 15,000단어에 이르는 기획 기사를 작성하게 된다.

3. 요약 및 함의

1) 미국 경제/금융 저널리즘 대학원 현황 요약

물론 이러한 미국형 언론대학원은 기자 충원과 교육방식은 물론 언론의 목적과 철학이 다른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자본시장의 자유화와 글로벌 시장의 급속한 등장으로 인해 국제 금융과 같은 복잡한 영역에서 대중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전문적 기자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국 내 일반 저널리즘 학교에서 경제와 금융을 포함한 전문영역과 관련한 과목들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대학원 과정 또한 최근에 신설되었거나 증설되고 있다는 것은 이를 잘 대변해 준다. 이 연구는 따라서 이들 미국 내 과정들이 가진 공통점을 살펴봄으로써 한국형 저널리즘 대학원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했다.

무엇보다 먼저 이들 과정들은, 다음 <표 1>에서 드러나듯,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장점과 경제, 금융, 법학과 과학을 포함한 풍부한 학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주로 뉴욕, 워싱턴, 시카고, 보스턴 및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에 위치,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는 장점을 누리는 동시에 경영대학원과 로스쿨과 같은 관련분야자원을 손쉽게 활용하고 있다.

학문적/지리적 자원의 활용 측면만이 아니라 이들 과정은 또한 ‘경제/금융/비즈니스 보도의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동일한 교육 목표를 갖고 있다. 물론 바람직한 전문적인 인체에 대한 세부적인 강조점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 버클리대와 뉴욕시립대는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를 두루 다룰 수

<표 1> 과정별 분석

평가 요소	공통점(특이점)
교육목적	경제 분야 엘리트 전문기자 양성(뉴욕시립대의 경우는 윤리의식 높은 전문기자)
학생구성	학부졸업생, 언론기관 및 금융기관 유경험자(컬럼비아대만 석사 및 다년간 언론계 경험자)
교수진 특징	유력 경제보도 전문지 출신,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윌스트리트, 뉴욕타임스, 포춘, 머니, 블룸버그 등)
교육기간	2년 과정(뉴욕대, 버클리대, 버루치대); 15개월 과정(뉴욕시립대, 보스턴대, 노스웨스턴대); 1년 과정(컬럼비아대, 아메리칸대)
등록과정	풀타임 및 파트타임 과정(버루치대 및 아메리칸대 제외, 풀타임 과정)
인턴과정 및 취업	실무 경험 없을 경우 인턴 필수(컬럼비아대의 경우, 인턴과정 없음)
매체별 구분	신문, 방송, 쌍방향 미디어 또는 뉴미디어 구분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 노스웨스턴대의 경우에는 해외 인턴과정을 필수로 설정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전문가 중에서도 특히 엘리트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과정도 있는데, 컬럼비아대를 포함, 뉴욕대, 보스턴대, 버클리대와 노스웨스턴대가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뉴욕시립대와 버루칼리지는 명문 사립대에 진학할 여유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은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학생 충원 방식에서도 이들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행보를 취하는데, 학부졸업생의 경우에는 학부전공에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으며, 언론기관만이 아니라 금융기관 근무경력 또한 입학사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컬럼비아대는 전문적인 기자 교육과정인 Master of Science 과정을 마친 학생과 상당기간의 실무 경험을 가진 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과정들과는 구분된다. 이들 과정의 교수진 및 강사진은 대부분 미국 유수의 언론매체에서 충원되는데, 특히 컬럼비아대 언론학 석사과정 이수자들이 그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석사학위가 없는 현업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주로 초빙

강사 형식으로 출강하는데, 뉴욕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들과 이들 강사진의 만남을 정례화, 이를 토대로 사제관계를 동료관계로 자연스럽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대체로 1년, 1년 반 또는 2년 정도의 교육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 과정 대부분이 이론과 실무를 통합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보다는 풀타임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아메리칸대와 버루칼리지의 경우에만 파트타임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약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엘리트 기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풀타임이 요구되는데, 뉴욕대와 버클리대는 2년, 노스웨스턴대와 보스턴대는 약 15개월, 그리고 컬럼비아대는 1년의 교육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 과정에서 저널리즘 전공은 매체는 물론 세부 주제별로 나뉘는데 주로 신문, 방송, 뉴미디어에 따른 구분과 경제, 국제관계, 정치 및 과학과 같은 구분이 보편화 되어 있다. 하지만 보스턴대의 경우에는 매체별 구분과 세부 전공별 구분이 혼재되어 있는데, 학생들은 따라서 신문, 방송, 경제/비즈니스와 과학저널리즘 중에서 한 분야를 택하게 된다. 컬럼비아대 과정 또한 매체에 따른 구분 대신 세부 전공을 ‘경제/비즈니스’, ‘정치’, ‘문화 및 예술’ 그리고 ‘과학/건강’에 따라 나누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학교에서 개설되는 세부 전공에서는 일정한 차별성이 발견되는데, 이는 이들 학교가 가진 학문적인 장점이나 지리적 특성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뉴욕대와 컬럼비아대는 이에 세계 최대의 문화도시라는 장점을 살려 ‘문화/비평’ 관련 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아메리칸대는 워싱턴이라는 지리적 강점을 활용해 ‘국제보도’와 ‘공공정책’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학교는, 비록 과정별 명칭은 차이를 보일지라도, 대체적으로 과학, 환경, 의학, 건강 관련 과정을 두고 있는데, 경제전문 과정만 있는 버루칼리지를 제외한 뉴욕 소재의 뉴욕대, 뉴욕시립대와 컬럼비아대 모두 이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개별 학교가 가진 학문적 장점 또한 특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컬럼비아대의 경우에는 ‘정치’ 분야를, 노스웨스턴대는 ‘종교’와 ‘법률’ 분야를, 그리고 버클리대의 경우에는 ‘국제보도’에 강조

<표 2> 교과과정 분석

과목 주제	수강 과목
저널리즘 이론 및 실기	저널리즘의 역사(History/Principles of Journalism)
	언론과 사회(The Mass Media and Society)
	언론철학(Journalistic Judgment, Evidence & Inference)
	언론윤리 및 법제(Law and Mass Communication, Legal and Ethical Issues)
	탐사보도(Investigative Reporting)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s, Journalism Methods, Advanced Journalism Research)
	온라인저널리즘(Fundamentals of Interactive Journalism, Introductory Multimedia Reporting)
	뉴스 작성, 자료수집 및 보도 워크숍(Writing, Research and Reporting Workshop)
경제보도 이론 및 실기	보도 수업(Reporting Class)
	경제 및 비즈니스 저널리즘(Economics/Business Journalism)
	경제보도 세미나(Seminar of Public Affair Reporting: Economic and Business Coverage)
	비즈니스저널리즘의 역사(Evolution of the Business Press and the Companies It covers)
	비즈니스/경제보도 이론과 실제(Business/ Economics Journalism Seminar)
	경제뉴스 보도(Covering the economy)
	경제 뉴스 편집(Editing Business News)
	경제/비즈니스 보도 (거시경제, 기업보도, 월가보도)
경제/비즈니스 전공 수업	경제/금융보도 작성(Business & Financial Writing)
	국제경제/금융/무역(International Economics, International Finance, International Trade)
	미국 경제사(American Economic Development)
	국제정치경제학(Modern Political Economy)
	기업금융(Advanced Corporate Finance)
	산업조직론(Industrial Organization)
	노동경제학(Labor Economics)
금융관리(Financial Management)	

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교과과정은, 앞의 <표 2>에서 드러나듯, 대체로 저널리즘 일반에 대한 이론/실기, 경제 저널리즘 이론/실기 및 경제/금융 전공분야 과목으로 분류된다.

경제저널리즘이라는 전문보도 영역을 다루면서도 이들은 공통적으로 언론 윤리 및 언론법제 과목을 강조하는데, ‘Law and Mass Communication’이나 ‘Legal and Ethical Issues’ 및 ‘Laws and Ethics’와 같은 과목들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학생들의 심층 및 분석 기사 작성 능력을 키우기 위한 ‘Research Methods’ 나 ‘Journalism Methods’ 또는 ‘Advanced Journalism Research’ 과목도 보편화 되어 있다.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뉴미디어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과목들도 주목을 받는데, 뉴욕시립대의 ‘Fundamentals of Interactive Journalism’이나 버클리대에서 개설하는 ‘Introductory Multimedia Reporting’ 과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뉴욕대와 버루칼리지 및 버클리대의 경우, 언론의 사회적 감시기능을 경제 및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대시킨 탐사보도 과목도 개설하고 있는 데 학생들은 ‘Investigative Reporting’이나 ‘Investigative Business Reporting’과 같은 과목을 통해 개별기업이나 경제단체 또는 정부에서 발간하는 각종 경제지표를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훈련을 받는다.

경제보도와 관련, 특화된 수업으로는 경제 및 비즈니스 뉴스 작성 및 보도에 대한 실무를 가르치는 ‘Business and Financial Writing’과 같은 과목과, 이론 및 실기를 겸한 ‘Business/Economics Journalism Seminar’와 같은 수업이 있다. 특히 버루칼리지의 경우, 경제보도 영역에서 매우 세분화된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비즈니스 저널리즘의 역사는 물론 월스트리트, 은행, 노사관계 및 경제관련 공공정책으로 특화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해당 보도 분야에서 최고의 엘리트 언론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학교들은 경제보도 영역을 넘어서 경영, 경제 및 금융 관련 석사과정 수업을 의무 수강과목으로 정하는 데, 뉴욕대, 노스웨스턴대, 보스턴대, 버클리대, 아메리칸대와 컬럼비아대가 모두 관련분야 전공필수 과목을 두고 있다. 이들 과정에 속한 학생들은 따라서 국제무역, 국제금융, 국제경제는 물론 에너지경제학, 노동경제학 또는 미국경제역사와 같은 수업을 듣게 된다. 더욱이 이들 과목이 대부분 석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금융/비즈니스를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은 입학 전에 해당분야에 대한 학부수준 이상의 기본 지식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

2) 한국 언론 전문대학원에 대한 합의

의심의 여지없이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한 억압적인 언론 통제라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언론의 독립성 유지 및 객관성 확보를 추구해온 국내언론의 목표, 철학 및 현안은 미국 언론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미국의 경험을 한국 언론이 당면한 많은 과제들에 대한 '유일하거나' '정확한' 처방으로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된 국내권력 구조의 다변화와 언론권력의 등장 및 인터넷으로 촉발된 언론 환경의 변화는 한국 언론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강명구, 2004). 이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언론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부적 강제가 아닌 '내부적 규율'의 한 방편으로 미국적 경험을 창조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 실정에 맞는 언론인 전문교육을 위한 합의를 찾기 위해서는 이들 경제보도 전문 석사과정을 프로그램별 특성과 교과과정별 특성으로 나누어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는 이들 대학원이 집중된 곳이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에서 서울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유사한 경제보도 전문과정이 서울에 설립될 경우, 블룸버그와 로이터와 같은 서방 경제전문지의 기자들을 포함한 전문 기자들을 중심으로 풍부한 교수진을 확보할 수 있고, 학생들 또한 서울소재 언론 기관을 통해 풍부한 인턴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한국 기자들의 경우, 비록 현장 경험은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바로 교수진으로 투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언론대학원 과정을 학부생, 금융기관 종사자 및 비교적 경력이 짧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한 Master of

Science 과정과 석사학위 소지자 및 상당기간의 현직 언론사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Master of Arts 과정으로 이원화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경험만 가진 기자들의 경우에는 전자의 과정에 집중하고, 언론학자 및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기자 및 금융전문가들은 후자 과정의 교수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물론 특화된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이 과정의 학생들은 정치학, 법학, 국제경제, 과학 분야의 전공과목을 의무적으로 수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보도 전문과정의 교육기간 및 등록 방식은 1년 과정, 풀타임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데 학생들은 이를 통해 저널리즘에 대한 이해를 포함, 경제보도의 특수성과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집중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다. 즉, Master of Science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인턴과정을 포함, 실제 경제부 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수준의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고, Master of Arts 과정을 통해 미국과 영국 주도의 경제전문지를 보다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전문적인 연구조사 방법을 바탕으로 심층, 분석, 기획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을 4:1 정도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학생들은 이를 통해 교수진과 밀접한 도제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교수진 또한 학생들과의 토론 및 협력을 통해 자신의 전문분야를 보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부 기자의 경우, 학생들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기획기사나 분석기사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한국형 전문 언론대학원이 비록 외형적으로는 미국 내 프로그램들(특히 뉴욕대와 컬럼비아대)을 형식적으로 모방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세부전공 과정과 교과과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미국 내 대학들 또한 지역적, 학문적 특성을 고려, 서로 다른 세부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것에서 유추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경제/금융 보도 과정을 포함, 과학/기술/의약, 그리고 국제/외신보도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 국제보도에 특화된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에 의한 외부적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현실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최근 황우석 교수의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과학과 기술보도 관련 전문기자 육성도 시급한데,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국내 대학 및 연구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과학 및 기술’ 분야 특화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 및 금융관련 보도와 관련한 교과과정 또한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표 2>의 분류처럼 저널리즘의 이론과 실제, 경제보도 이론과 실제 및 경제/경영 전공과목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저널리즘 일반 과목의 경우, ‘언론의 사회학’, ‘언론의 정치학’과 ‘언론과 국가이익’과 같은 과목이, 경제보도 부문에서는 ‘경제저널리즘의 비판적 독해’와 ‘국제금융시장과 언론’과 같은 과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의 경우 국제적 외환위기 및 금융/경제가 국제정치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는 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형 경제모델에 대한 이해와 국제금융시장 및 국제정치경제학 관련 수업들이 고려될 수 있다.

Ⅰ 참고문헌

- 강명구 (2004). 한국 언론의 구조변동과 언론전쟁. 『한국언론학보』, 제48권 5호, 319~349.
- 김성해 (2006). 언론과 (대외) 경제정책: 문화엘리트 모델의 시각에서 바라본 미국 언론의 정치성. 『한국언론학보』, 제50권 5호, 30~54.
- 남재일·최민재 (2005). 『한국의 언론교육과 저널리즘 스쿨』. 서울: 한국언론재단.
- 손석춘 (2000). 『여론 읽기 혁명』. 서울: 한겨레신문사.
- 송우천 (2001). 언론학 교육에서 이론과 실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7호, 61~84.
- 이민웅 (2002). 좋은 뉴스의 으뜸가는 조건으로서의 진실 보도: 사실, 사회적 구성, 진실보도, 재구성. 『언론과 사회』, 제10권 3호, 9~51.
- 이재경 (2005). 한국의 저널리즘 교육: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한국언론학보』, 제49권 3호, 5~30.
- 이진로 (2004). 한국공영방송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 노무현 정부 초기 한국방

- 송공사 사장선인 과정 분석. 『언론과학연구』, 제4권 2호, 177~211.
- 윤영철 (2006). 『공정성 개념의 이해와 적용: 공정성 평가의 기준』. 서울: 방송위원회.
- 정태철 (2005). 언론 전문직업인주의의 필요성: 1987년 이후 한국 언론의 문제와 개혁에 대한 논의. 『언론과학연구』, 제5권 2호, 417~454.
- 한균태 (1999). 미국저널리즘 교육의 딜레마: 이론 대 실무 논쟁의 재조명. 『삼성언론재단』.
- Harris, B. (1996). *Politics and the Rise of the Press: Britain and France, 1620~1800*. London & New York: Routledge.
- Munson, E. S. and C. A. Warren (1997). *James Carey: A Critical Reade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Philo, G. (1999). *Message Received: Glasgow Media Group Research, 1993~1998*. Harlow, England; New York, Longman.
- Schudson, M. (1995). *The Power of New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ell, O. (2005). *Dean's Address*. U. C. Berkeley Website.

(최초 투고 2006.11.29, 최종 원고 제출 2007.1.30)

Media and Education

Focusing on U. S. Graduate Business and Financial Journalism School

Sung-Hae Kim

Senior Researcher

Communication Institute, Yonsei University

There has been growing debate over the current crisis of Korean journalism especially since 1997. While identifying primary causes as 'lack of credibility and public accountability,' however, this paper claims that self-regulation initiated by enlightened and professionalized journalists is a plausible solution. This paper thus pays attention to U.S. graduate journalism schools which provide specialized program about business/economic/financial news. For this, in identifying commonalities of the programs in terms of education goals, geographical/academic resources and course works, this study wanted to elicit meaningful implications for media education. It was suggested in conclusion that not only would Seoul be an ideal place for combin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training, but such programs in New York and Columbia university might be creatively applied to Korean journalism school. Finally, the author hopes that this review will be a good starting point for envisioning graduate level of journalism school in Korea.

Key words: news, political public knowledge, public accountability, professional communicators, financial and business journalism